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anuary 24, 2019 Vol. 657



남가주교협이 미주 한인 이민 116주년 기념 헌신예배를 20일 오후 2시 30분에 나성열린문교회에서 드렸다.

남가주교협, 미주한인 이민 116주년 기념 헌신예배 드려

킹 퍼레이드 김영진 장로 그랜드마샬 위촉기념 20주년 기념식 겸해

남가주교협(회장 한기형 목사)이 미주 한인 이민 116주년 기념 헌신예배 및 킹퍼레이드 김영진 장로 그랜드마샬 위촉기념 20주년 기념식을 20일 오후 2시 30분에 나성열린문교회에서 가졌다.

이날 헌신예배에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학개 2:9)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한기형 목사는 "미국에서 많은 전쟁의 공로를 세우고 많은 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던 고 김영옥 대령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우리 민족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2세와 3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남가주교회들과 나성열린문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부 기념식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 김영진 장로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남북이 73년 동안 분단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창올림픽을 평화롭게 치르게 하셨다"라며 "앞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반도 땅에 평화와 통일의 때가 오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1부 헌신예배에서는 남가주교협 회장단이 특송을 하고 박헌성 목사(나성열린문교회)가 축도를 했다. 2부 기념식에서는 소강석 목사의 축시가 대독됐으며, 이병만 장로(미주한인재단 LA회장)의 환영사, 김영진 장로의 감사의 말씀, 그리고 김영진 장로, 박헌성 목사, 이병만 회장이 각각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한국인의 노래'를 합창함으로 행사를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美 펜스 부통령, 임산부들 만나 '낙태 반대' 재천명



마이크 펜스 부통령. ⓒ페이스북

오는 3월 낙태 반대 캠페인 '생명의 행진'을 앞두고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의회에서 임산부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트비트 인터내셔널(Heartbeat International)에서 주최한 '베이비스 고 투 콩그레스'(Babies Go to Congress) 참석차 워싱턴 D.C를 방문한 임산부들은 펜스 부통령과의 깜짝 만남에 기뻐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낙태에 반대하는 임산부들을 돕고 임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총 164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의회로 초청했으며, 그들의 자녀까지 330명이 의회를 방문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신의 자녀들은 미국의 중심에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임산부들을 돕는 센터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낙태 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의회의 자금 지원을 반대했고, 인디애나주 주지사 출신으로 평생 낙태를 반대해 온 인물이다. 그는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낙태에 반대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난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미국법의 중심으로 다시 가져왔고, '로 대 웨이드' 사건(낙태 합법화 판결-편집자 주)을 역사의 잿더미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주 "오래 전 공직에 출마했던 이유가 바로 아기들 때문이었다"면서 "이것이 우리 시대의 소명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직원 해고한 美 호텔에 약 237억 원 징벌적 배상 평결

"회사가 종교적 자유권 침해했기 때문"

미국에서 주일날 근무를 거절했다가 해고된 한 기독교인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2,100만 달러(약 237억 4,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 평결을 받아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같은 평결은 회사가 그녀의 종교적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것 때문이다.

아이티 이민자이자 6명의 자녀를 둔 헌신된 기독교인이었던 마리 장 피에르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콘래드 호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녀는 지난 2006년부터 2016년 초까지 호텔에서 일해왔다. 그러나 그녀의 상관이자 주방 매니저인 조지 콜론은 그녀가 주일에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에르는 주일성수를 위해서 동료들과 교대 근무를 했지만, [2면에 이어 계속]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팩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한인 매니저) T.(562)916-5191 Sang.park@charter.com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주일예배 : 오전 6:00 /11:00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수요예배 : 오후 5:30
▪금요예배 : 오후 5:30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개척 기념 전도 부흥 성회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는 로렌 하이츠에 위치한 아름다운 교회 (담임목사 고승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개척된 지교회입니다.
치노 지역과 LA동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 시키는 것이 우리의 바램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세가지 꿈이 있습니다.

가정이 천국처럼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가정 중심 목회, 가정 예배 실천, 다문화 가정 사역, 치유 사역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체계적인 제자훈련, 한글학교, 신앙의 차세대 전수, 중보기도 사역

선교와 이웃 사랑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실크로드 선교, 국내 선교, 실버 사역, 중국 가정과 유학생 돌봄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일시 : 2월 8일(금) 저녁 7시 30분
2월 9일(토) 새벽 6시 30분
2월 9일(토) 저녁 7시
2월 10일(주일) 오후 2시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의 저자
2018 다니엘 기도회 강사

강 사 주명식 목사
(템파베이 열린교회)

경력 : 총신대 신대원 (M.Div)
리버티 신학교(S.T.M)와 리폼드 신학교 올랜도 캠퍼스(M.A.B.S)
미국장로교(PCA) 국내선교부(MNA)에서 파송되어 탬파베이 열린교회 개척


담임목사 조준민

〈예배 안내〉
주일 예배 : 오후 2시(P.M.)
새벽 기도 : 화 ~ 금 5시 30분, 토 6시 30분(A.M.)
수요 기도 : 7시 30분(P.M.)
중국어 성경공부 : 화 7시 30분 (P.M.)
汉语查经班 : 周二 晚上 七点半。
www.chinovalleybc.com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el : 714-461-6412 (조준민 목사)



남가주교협과 남가주목사회가 올해 삼일절 기념예배 준비 모임을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교협 안신기 총무, 한기형 회장, 목사회 김관진 회장, 강태광 총무

남가주 교계, 삼일절 100주년 기념예배 준비에 착수

남가주교계가 올해 삼일절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남가주교협과 남가주목사회는 22일 조찬 모임을 갖고 예배 준비 점검에 착수했다. 삼일절 100주년 기념예배는 3월 3일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이며,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올해 기념예배는 남가주목사회가 주관하게 되고 남가주교협이 주최한다. 이를 위해 남가주교계는 2월에 조찬기도회와 회의를 통해 행사를 준비하고, 3월경에 남가주교계 지도자 교류 및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도자 수련회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남가주 교계 관계자는 "한민족 기독교 사회가 자랑하는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연합예배를 드림으로 남가주 교회들과 신앙인들이 하나가 되는 기회를 만들 뿐 아니라 교회 연합의 틀을 마련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기회로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가주교협과 남가주목사회가 한 마음으로 이번 예배를 준비하기로 합의했다"며 "2019년 교협과 목사회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서 연합해 교계와 이민사회에 희망을 주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는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신년하례식을 열었다.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 신년하례식 열어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는 1월 14일(월)에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목사) 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김영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이인기 목사의 세계. 한국, 감리교 및 원로목사회를 위한 기도, 김도민 목사의 설교, 김영모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김도민 목사는 고린도전도 15장 10절을 본문으로 '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임원은 회장 김영대 목사, 부회장 민병엽 목사, 총무 이인기 목사, 서기 장피터 목사, 회계 김민희 목사이다. 남가주 감리교 원로목사회 다음 모임은 2월 11일(월) 오전 11시 윌셔연합감리교회(신영각 목사)에서 열리며, 유재덕 목사(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 총회장)가 2월 말에 있게 될 연합감리교회 특별총회 때 결정될 동성애 문제에 관해 강의할 예정이다.

[1면에 이어서] 콜론은 그녀가 정해진 시간에 나와야 한다고 명했다. 하지만 피에르가 이를 거절하자 2016년 3월 31일 그녀를 해고했다.

소송에 따르면, 호텔 측은 그녀가 부정행위, 태만,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녀는 2017년 5월 플로리다주 남부 지방법원에 호텔 측을 고소했다.

고소장은 "피고(호텔 측)는 원고(페이르)를 상대로 적대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원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질책하고 그녀를 해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피에르의 변호를 맡은 마르크 브루머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호텔 측은 법정에서 피에르가 선교사였다는 사실과 그녀가 주일날 일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에르는 "2009년 호텔이 일요일 근무를 계획했고, 만약 그럴 경우 (나는)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텔 측은 내가 떠나지 않도록 설득해서 2015년까지 요청을 받아주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들은 후, 마이애미 연방배심원단은 콘래드 호텔에 36,000달러(약 4,100만원)의 임금 손실, 50만 달러(약 5억 7000만원)의 위로금, 2,100만 달러(약 237억 4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브루머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 피에르가 최소한 50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는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NBC6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원하트미니스트리, 마커스 워십과 연합 예배



3월 1일부터 3일까지 마커스워십과 원하트미니스트리가 'United as ONE' 이라는 주제로 연합예배를 드린다.

올해 3월 1일(금)부터 3일(주일)까지 마커스워십과 원하트미니스트리가 'United as ONE' 이라는 주제로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세리토스장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

첫째 날인 3월 1일(금)에는 오후 7시에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본당(사우스베이 청년연합 찬양집회)에서 열리며, Daniel Newman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토렌스, 가디나 및 사우스베이 지역교회 청년연합회와 함께 청년세대 부흥과 연합을 위해 예배한다.

둘째 날인 2일(토)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세리토스장로교회 본당에서 "마커스워쉽과 함께 하는 예배 세미나 HWC(Heart Worship Conference)"가 열린다. 개회 워십은 허지애 간사가, 중간 워십은 지저스홀릭(Jesus Holic)이 이끌며, 심종호 전도사와 마커스워십팀의 모든 멤버들, 심형진 전도사 및 원하트 사역자들이 강사로 나선다.

실제 운영, 연주에 관한 다양한 트랙 강의로 구성되며 등록비는 $80이며 2월 25일까지 사전등록시 할인 받는다 ($50, 30명 이하 미자립교회 $40). 전화나 이메일로 등록이 가능하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Faith center 2층 예배실에서 마커스워십과 원하트미니스트리의 찬양집회가 열리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셋째 날 3일 주일 오후 6시에는 남가주사랑의교회 본당에서 지역의 모든 교회와 청년 및 예배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고창현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이 연합예배는 원하트미니스트리(One Heart Ministry)가 기획했고 GBC 미주복음방송, 남가주사랑의교회 젊은이 사역원, 세리토스장로교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남가주예배사역자 모임, 사우스베이 청년연합모임, 지저스홀릭에서 후원한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빌4:2)는 말씀을 통해 세워진 원하트미니스트리는 남가주지역에서 찬양과 문화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건강한 초교파 문화사역단체로 화요찬양모임과 다양한 집회, 수련회 기획을 통해 청년들과 예배자들을 섬기고 있다.

문의) 213-347-5080
Facebook : oneheartministry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성회
■ 일시 : 2월 1일(금) ~ 3일(일)
2월 1일(금) 7:30pm 기도 (막1:35)
2월 2일(토) 7:30pm 후손 (창3:15)
2월 3일(주일) 1부 8:00am 주여 (눅9:1-9)
2부 10:30am 주여 (눅9:1-9)
3부 1:00pm 단계 (요3:5-7)
4부 6:00pm 건강 (요삼1:2)
■ 장소 : 주님의 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 문의 : T.(213) 749-4500
대전 중문침례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고있는 장경동 목사는, 전세계를 다니며 쉴틈없이 빡빡한 강연일정과 바쁜 방송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복이란, 찾으면 보이는것', '나를 팔아 천국을 사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등 무려 31권의 신앙서적들을 펴내는 등 집필활동도 왕성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
엘에이의 심장부인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엘에이 교민들의 2019년을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넘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웃음과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경동목사(대전 중문침례교회)를 초청,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성회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장경동 목사 특유의 넉살과 재치넘치는 유머, 구수한 입담과 솔직 담백한 시간으로 유머와 감동이 조화를 이룰 예정이며 웃음속에서도 잔잔한 감동이 강한 여운으로 남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단순한 웃음을 넘어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더불어 이민자의 삶에 더욱 활력과 희망, 용기를 불어넣어줄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성회' !!!
장경동 목사는 예수님을 믿지않는 분들에게도 인기와 인지도가 높은만큼,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않는 분들에게도 적극추천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2019년으로 창립 20주년을 맞게된 주님의 영광교회는 LA다운타운, 그랜드와 워싱턴이 만나는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구원을 받으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하여 제자되기를 힘쓰며, 2세가 잘되도록, 또한 선교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거행



2019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1월 21일(월)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에서 거행됐다.

2019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1월 21일(월) 오전 11시에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에서 열렸다. 남가주밀알 실행이사인 양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남가주밀알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되어 '밀알 스토리' 영상 상영과 윤필원 목사의 기도, 미주밀알선교단 부이사장 겸 미주복음방송 사장인 이영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영선 목사는 '땅 끝을 확인한 자의 복(행 1:8)'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밀알 장학금을 정성껏 마련해 매년 수많은 장애인 학생들을 후원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학생들도 장애라는 절망적인 '땅 끝'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축복을 발견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이후 장학금 수여식이 거행됐고, 남가주밀알 이종희 단장의 감사의 말씀에 이어 이영선 미주밀알 부이사장의 축도로 장학금 수여식이 모두 막을 내렸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 미주장애인장학생 9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장학생 38명, 제3국 및 북한 장학생 10명,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20명,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10명 등 총 90명에게 $153,200의 장학기금이 전달되었다.

이로써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이 출범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총 지급액은 $2,387,000에 이른다.

리바이벌 남가주 청년연합수련회 성황리 개최



Revival 남가주 청년 연합 수련회 단체사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남가주 일곱 교회가 함께 하는 청년 연합 수련회가 "Gospel Movement(복음과 청년 부흥)"을 주제로 열렸다.

라미라다(La Mirada)에 위치한 예수커뮤니티교회에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동부사랑의교회, 오버플로잉교회, 다우니제일교회, 언약교회, 호산나평화교회, 생명의 길교회, 한울림 교회에서 총 92명이 참석했다. 수련회 주 강사로는 코스타 강사인 박상현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다. 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조하며, "선교는 고통과 고난이 아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며 선교에 동참을 촉구했다.

수련회에 참석한 우제석 형제(동부사랑의교회)는 "수련회를 통해 제 고집과 기준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련회를 주최한 'Revival 남가주 청년연합'은 2018년 1차 수련회를 거쳐 올해로 두번째 연합 수련회를 이끌었다.

이번 수련회를 기획한 하신원 강도사는 "청년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 이민교회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요? 한 교회나 특정 교역자가 이끌어가는 부흥이 아닌, 이민교회가 연합하여 지금 한어청년들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일회적 이벤트가 아닌 지속성있는 연합으로, 이 세대가 변화되고 남가주 지역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다.

연합수련회에서는 마지막 순서로, 2월에는 열리는 "Tuning Again 청년 연합 컨퍼런스"(4개 교회 연합)와 "One Way 청년연합수련회"(5개 교회 연합)를 통해 청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기도했다.

'북한 복음화의 꿈' 위해 통일 전문가들 나선다

미주 디아스포라 대결집 복음통일 전문세미나 및 연합기도회

국제통일전문가네트워크(Global Expert Network for Reunification Korean) 주최로 복음통일 전문 세미나 및 연합기도회가 오는 2월 12일(화)부터 15일(금)까지 패서디나(Pasadena)에 위치한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에서 개최된다.

미주 각 지역의 성도와 통일을 기도하는 단체 및 기도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이학준 교수(풀러신학교)의 "하나님의 선교, 복음, 한국통일", 이상명 교수(미주장신 총장)의 "디아스포라 한인 크리스천들의 북한 복음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 천기원 목사(두리하나 대표)의 "동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유와 복음이었습니다", 윤학렬 영화감독의 "영상의 영적분별력과 영상 문화의 영향력", 강석진 선교사의 "북한지하교회의 실체와 성도의 신앙"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나서 강의를 이끌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임현수 목사, 이정훈 교수, 이승종 교수가 메시지를 전한다. 국제통일전문가네트워크는 작년 3월 결성되었으며 유관지 목사, 정성진 목사, 고명진 목사, 임현수 목사, 신창민 목사, 박상원 목사, 이정훈 교수, 이규영 교수, 윤학렬 영화감독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정성진 목사, 고명진 목사, 신창민 박사가 공동대표로, 박상원 목사가 총무간사로 섬기고 있으며 사랑의빛선교교회가 주관하고 T.M.T.C. 합류통일동포연합, 기독일보, 기드온동족선교에서 협찬한다.

효사랑 시니어대학 봄학기 개강

효사랑선교회(김영찬 목사)가 2019년 시니어대학 봄학기를 개강한다. 시니어대학은 2년제 과정이며 신실한 신앙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효사랑선교회는 "존경 받는 어르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야 자녀들이 보고 배워 신앙의 고귀함을 알고 부모를 존경하며 삶을 본받게 된다"고 말했다.

매주 화, 목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3과목씩 수업하게 된다. 힐링 댄스, 찬양율동, 음악교실, 난타교실, 한지공예, 성경의 줄거리를 쉽게 설명해 주는 성경 파노라마 교실, 생활영어 교실,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강의 등으로 구성된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탁구교실과 건강검진이 있다.

2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강하며 등록비는 월 30불로 시니어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봄학기는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지속된다.

주소: 14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21

문의: 곽 사무엘 목사 (323) 737-0691, 김영찬 목사 (562) 833-5520

시니어 센터, 설날 큰 잔치 개최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Koreatown Senior and Community Center, 이사장 이영송)에서는 설날을 맞아 2월 5일 오전 11시에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설날 큰 잔치를 개최한다. 올해는 LA평통(회장 서영석), 엣지마인(edgemine, 회장 강창근)과 시니어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18세 이상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시니어합창단, 장구반, 클래식 기타반, 라인댄스팀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무료 점심식사와 떡, 퀴즈를 통해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주소 965 S. Normandie Ave. #200, LA, CA 90006

문의 (213) 387-7733





www.aeu.edu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미주총회가 설립하고 미연방교육부 USDE, CHEA가 인준한 학교이며 ABHE의 정회원으로서 정식인가를 받아 학위를 수여하며 OMS, 서울신학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성대학교에서 신(편)입생/교환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소명감과 실력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 집 과 정

본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과 연방정부 교육부 인준
ABHE에서 정식인가를 받아 학위를 수여함

- **신 학 부**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선교학석사(M.MAIS), 목회학박사(D.Min.)
- **경영학부** : 경영학과(BBA.), 경영학석사(MBA)
- **상담학부** : 상담학석사(M.A.C.), 상담학박사(D.C.)

※ 상담학 박사 지원자중 상담학 석사 소지자 특별 장학금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입 학 지 원

1. 입학서류 : 본교 소정 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aeu.edu)
2. 전형방법 : **1)서류심사 2)면접(장학생 선발)**
3. 신청마감 : **2019년 1월 28일(월)**

문의 및 연락처

- **미국** : Tel. 323-643-0301 / E-Mail. admission@aeu.edu
  담당 : 전계레 간사(Isaac Jun)
- **한국** : Tel. 010-4718-0899/ E-Mail. maria1039@hanmail.net
  담당 : 박인숙 간사
  총괄상담 : 김영철 박사(대외협력부총장 Tel. 010-3586-5155)

미성대학교의 특징

- ABHE 정회원 / 서울신학대학교 MOU체결(교수, 학생, 학점등 전과정 협약)
-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강의
- 한국과 미국 또는 전세계에서 수강가능(온라인 강의)
- 국내외 유수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뛰어난 교수진

특 전

- 모든 과정 I-20 발급, 졸업후 전과정 OPT 가능
- 저렴한 학비, 수업료 분납가능
- 연방정부 장학금(Grant) 및 융자(Loan) 가능(영주권 또는 시민권 학생)
- 성적과 자격에 따른 다양한 장학금(11종)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총장 : 류 종 길 박사

T. 323-643-0301 / F. 323-643-0302 /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 97〉

아프리카 우간다 윤종국 선교사를 기리며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지금 아프리카는 영혼구원의 영적 대 추수기를 지내고 있다. 복음화율이 높지 않았던 우간다에서도 대부흥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 늘 기쁨이 넘친다.

감사와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다가 지난 주 뜻하지 않은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필자가 파송 때부터 후원하며 같이 기도해 오던 우간다 김세현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해진 소식이다. 같은 지역에서 지난 5년 여간 동역해 온 윤종국 선교사의 순교소식이었다.

故 윤종국 선교사님은 NGO단체인 유니온비전에서 2014년 부인 주경희 선교사님과 슬하의 호성, 현수 두 아들과 파송 받아 아프리카 우간다에 정착했다.

지난 5년간의 길지 않은 사역기간동안 열심히 지역교회와 오지 선교를 통해 200여 곳의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책임자로 섬겼고, 부인 주경희 선교사는 두 아들을 키우며 어린이사역과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 1천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역자로 두 분은 초인적인 힘으로 큰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 날도 윤 선교사는 한국의 교회에서 후원하여 한 마을의 교회당을 건축하여 헌당을 준비하던 차 한국교회 선교팀의 방문일정에 맞추어서 예배당을 마지막 점검하고 본부로 귀가하던 중 맞은편에서 갑자기 달려 나온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언덕 아래로 차가 굴러 떨어져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같이 동석했던 현지인 스텝들 2명은 모두 무사하고 운전하던 윤 선교사님만 하늘의 부름을 받아 슬픔 중 감사했다 한다.

김세현 선교사의 집례로 천국 환송예배를 드렸다. 아! 40의 젊은 선교사님 내외 그리고 두 아들. 고국 땅을 떠나 열방의 영혼들을 섬기고 구령의 사역에 5년간 온 힘을 다 쏟다가 불의의 사고로 남편 선교사님을 떠나보내고 이제 부인선교사님 그리고 어린 두 아들이 그 땅에 남았다.

남은 그들을 위해, 그들이 이겨 내기를 위해,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위해. 우리들의 기도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독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필자는 섬기는 선교단체 안에서도 사고와 병으로 또 강도 맞아서 폭탄테러로 인해 현지 선교사들이 여러 명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주님! 아시지요?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눈물을." 그렇게 같이 울부짖으며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고 아파하고 또 치유되어 가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목숨 바쳐 일구어낸 값진 선교지의 사역에 그 열매가 계속 자라나기를 바란다. 그 열매가 자라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 큰 꿈을 같이 꾸고 싶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필자의 아들과 딸은 미국 동부에 살고 있습니다. 서부에 살고 있는 부모와 떨어져서 공부하며 자신들의 삶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비교적 성실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고, 슬기롭게 자신들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필자는 아이들과 매일 소통하면서 삶과 꿈과 희망을 나눕니다. 거의 매일 아침 SNS를 통해서 대화하며 아이들과 일상의 삶을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시시하고 사소한 일상의 나눔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삶을 나누는 것이 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도 바쁘고 필자도 바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가족 대화방에서 소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매일 아이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필자의 행복입니다. 힘차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부모로서 대견하고, 부럽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자녀들의 행복과 불행이 부모들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자녀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의 행복입니다. 아마 모든 부모들이 예외 없이 공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범죄여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쁘고 즐거운 삶을 거듭 거듭 강조하십니다.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회로 모일 여호와의 절기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할 3대 절기 즉, 유월절, 초실절(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법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을 지키는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원칙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23장 40절에서 그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절기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토지에서 첫 소산물을 얻어 감사를 드리는 초실절이나, 과거 애급에서 노예 생활의 아픔과 상처를 씻고 해방의 기쁨을 감사하는 유월절이나 하나님이 주신 수확들을 감사하는 초막절이나 한결같은 정서는 기쁨의 정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의 질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건강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인정하실만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은 우리의 즐거움이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예배)를 드리면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을 위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또 받을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예배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고 명 진 목사
복음통일 세미나 공동대표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shalom)'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이다. 평화라는 뜻 외에 '평강', '평안'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인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 중 하나가 '샬롬'이다. 그런데 과연 '샬롬'이라는 단어에 담긴 깊은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 "평안하세요"라는 인사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있다. 히브리인들에게 '샬롬'은 '생명을 공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살며 그 복을 이웃과 공유하고 사회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며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평화라 할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 즉 '샬롬'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사회를 향해 그 복이 흘러가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다. 질병, 폭력, 전쟁, 가난, 재해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북녘 땅을 바라보자. 헤어 나올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먹을 수 없고..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에겐 '샬롬'이 없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북녘 땅의 우리의 동포들에게 '샬롬'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에게 '샬롬'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으로 임하셨다. 그리고 북녘 땅에도 '샬롬'으로 임하시길 원하신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며, 그 복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평화의 공동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이 평화의 공동체가 이뤄지도록,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샬롬'의 삶인 것이다.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2019년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

마태복음 12:46-5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본문 마태복음 12:46-50

1.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외에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심리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치닫고 있는 반면 예수님과 반대적 입장에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46절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서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이 되어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열심히 말씀하고 계실 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린다고 전하니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냐"하시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이 전하는 하늘나라 비밀을 열심히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모친 마리아나 동생들이 듣기에 상당히 서운해 할 만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희생하기 위해 오신 공적 사명자의 입장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기 전에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헌금을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깨우치심과 감동하게 하심으로 영적인 소망의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육신의 세상조건보다는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영혼이 더 나은 자격으로 내세 소망인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토록 살기 위한 목적으로 믿음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단인줄 알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과 만난 이후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히 거듭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는 목적과 방법이 바뀌어져야 하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로 인하여 방언도 하고 이적기사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 놓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며 전달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하며 빈정대는 말을 듣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아무런 변화도 없이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하던 때의 말투와 생활, 행동이거나,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생활모습이 영적 가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았다면 죽은 상태의 신앙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생동감이 넘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게 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복음의 제물로 투자하고 희생,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천국시민권자로 바뀐 사실과 육체의 본능적으로 살던 인생이 영적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성령에 이끌리어 쓰임받는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내세소망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어지게 될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55-57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나서 부부로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했고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혈연관계로만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죽임당하실 때 하늘이 먹장같은 구름으로 덮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며 죽은 시체가 일어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모친과 동생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10여차례 만나주시고 예루살렘 감람산 꼭대기에서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 팔 하나씩을 붙들고 올라가면서 "너희 가운데서 올리워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몇 날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될 터인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600명이 주님의 승천을 보았지만 그중 480명은 주님이 남기신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자기길로 가버렸습니다. 남은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금식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에 각 사람의 머리위에 불의 혀같은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5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형제고 자매이며 모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40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파송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아 모신 사람들을 예수님은 형제고 자매, 모친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27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여 서둘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회개치 않고 고집으로 버티다가 훗날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던져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5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했습니다. 즉, 성령을 못받은 사람은 목사고, 장로라도 다 지옥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9-11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서 회개하여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되십시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비만의 개선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재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의 예방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하지절단) 37%(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제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GAIA CODYCEPS

가이아 동충하초

겨울에는 곤충으로 있다가 여름에는 버섯으로 피어난다 하여 동충하초(冬蟲夏草)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등소평이 94세까지 장수하기 위해 가장 즐겨먹던 음식.

다른 성분은 일체 넣지않은 **100% 동충하초 분말**

한국 가이아 팜에서 재배한 유기농 동충하초를 **미국으로 직송**

코디세핀이 풍부한 21세기 **천연항생제**

한국 식약처 안전 검사필 (No. 2013-0372219)

면역세포증식
치매예방
당뇨
성기능 증진

동충하초의 핵심성분인 **코디세핀**은 항암, 혈당조절, 두뇌세포 활성화에 탁월한 효과





한병 분말 100 g
$130+Tax

가이아 동충하초의 성능

01 항암효과 및 면역력 향상

동충하초 하면 항암 성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 효능'하면 항암효과를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명성에 걸맞게 동충하초는 높은 종양 억제율의 항암성분으로
항암 효능이 뛰어나 각종 암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항암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은 동충하초의 성장 도중에 만들어
진다고 하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암세포 자체의 억제와 번식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환절기에 감기와 같은 환절기 질환을 예방 하는 '면역력' 향상에
큰 효능이 있습니다.

02 혈당 조절

동충하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췌장기능을 강화 시켜주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관리에 효과적이고,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혈당 수치 조절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 효과가 커서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03 혈압조절 및 생식기 기능 강화

동충하초에는 칼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칼륨 성분은
혈압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효능이 뛰어나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E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노화방지에 탁월하고
생식기 기능 향상 및 강화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정력 강화 하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를 복용 하고 계십니다.

04 간 기능 향상 및 회복

동충하초에는 다당체, 만니톨, 에르고르테롤과 같은 다른 식품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간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꾸준히 복용하시면 간의 손상을 막고 각종 간 질환을 예방 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만니톨 성분은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간 뿐만 아니라 순환기 계통의 질병 예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05 다이어트 효과

다이어트에도 동충하초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충하초가 몸 속에 있는 중성 지방을 없애주는 데에 매우 효과적
이라고 합니다. 비만은 성인병의 근원 이기도 하죠? 성인병 예방과
비만관리에도 큰 효능이 있겠네요. 비만 환자분들과 여성분들에겐
이처럼 큰 희소식이 없네요!

06 두뇌세포 활성화 기능

두뇌세포를 활성화하여 치매예방, 마약중독 후유증, 신경안정,
기억력 증진에 효능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갱년기 장애를 예방하고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한달에 한번 큰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네요.**

가이아 동충하초 맛있게 드시는 방법!



물과 함께 동충하초 분말 1스푼을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먹습니다.



두유나 우유에 타서 먹습니다.
요거트에 1티스푼 정도 섞어서 먹습니다.



밥할 때 넣어서 밥(4인분 기준 4스푼)을
지어 먹습니다. 각종 요리에 뿌려서 먹습니다.

구입 문의 213. 434. 1170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허연행 목사가 뉴욕교협 2019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에서 성결을 강조했다.

허연행 목사가 뉴욕교협에 당부한 메시지 "성결한 삶 살자"

정순원 회장도 신년인사에서 "성결" 강조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정순원 목사)가 회원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성결한 삶"을 강조해 주목된다. 뉴욕교협은 14일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열었으며, 이날 설교와 신년사 모두 "성결"에 대한 메시지에 집중되면서 어느 때보다 뉴욕교협의 한 해 이정표가 분명하게 제시되는 신년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프라미스교회 담임 허연행 목사는 "성결이 능력입니다"(수3:5-6)라는 제목의메시지를 통해 성결한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음을 알리며, 올 한해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보다 '성결'을 우선할 것을 당부했다. 허연행 목사는 설교에 앞서 "(신년감사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올 회기 교협의 주제가 마음에 와 닿았다"고 소개했다. 올 45회기 뉴욕교협의 표어는 "성결한 삶을 실천하는 교협"이다. 교계의 위신을 바로 세우고 이민교회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무엇보다 목회자 개개인을 비롯한 성도 개개인의 성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연행 목사는 현지 교계의 상황에 대해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안식의 복을 누리기 직전"이라면서 "그러나 그 약속 받은 가나안 땅 앞에서 때 아닌 장애물이 앞에 등장했다. 요단강 물이 평소보다 몇 배나 차 올라서 넘실댔고 맨손과 맨발로는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고 했다. 허연행 목사는 이와 관련, "건너갈 수도 없었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본문 5절과 같이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이었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연행 목사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시다.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면서 "홍해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다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또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연행 목사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강권적인 역사를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 속에서 성결이 이뤄질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해석했다. 허연행 목사는 지난해 2월 소천한 빌리 그래함 목사와 관련해서도 "75년을 목회와 전도와 선교를 다니면서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분"이라면서 "전도집회를 다니면서 자신과 전도팀의 도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전도집회를 아무리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덕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강조했다. 허연행 목사는 "오늘날 세상이 너무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혼탁해져가고 있다. 능력있는 사람은 많지만 성결한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이러한 때에 45회기 교협이 순결한 삶을 주제로 정한 것은 시대의 핵심을 찌른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교협 회장 정순원 목사는 신년사를 통해 "성결의 삶"에 대해 누차 강조했다. 정순원 목사는 이민목회 26년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결'이라는 메시지를 붙들고 지켰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음을 강조했다. 이에 정순원 목사는 "성결한 삶을 통해 뉴욕교계를 비롯해 뉴욕사회가 서로 신뢰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은 예년과 동일한 450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SAT 강좌개설 하며 2세들 신앙훈련 병행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가 봄학기 진학을 위한 SAT 과정을 개설하며 신앙훈련 등의 한인 청소년들에 대한 전인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정순원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가 매년 한인 수험생들의 봄학기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SAT과정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특별히 SAT과정에서 신앙훈련 과정도 강조해 주목된다.

청소년센터는 "이민교회의 밝은 미래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계승하는 것에 있다"면서 "2세들을 위한 교육이 절실한 이 때에, 본 프로그램은 SAT 뿐만 아니라 신앙을 이끌어 주고,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센터에 따르면 이번 SAT 과정에는 검증된 전문 강사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SAT 강좌를 진행하면서 예배와 멘토십도 인도한다. 이에 대해 청소년센터는 "이 과정은 신앙훈련과 공부를 병행하는 전인적인 교육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부 방식은 과목마다 개인별 레벨 테스트 후 반을 편성해 지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기간은 2월23일부터 4월27일까지 10주 과정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고등학생 10명으로 수업료는 850불이다.

청소년센터의 SAT 과정은 미국 대학에 진학하는 한인 2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위해 개설돼 현재까지 많은 한인 청소년들을 도왔다. 항상 예배를 드리고 진행하는 등의 신앙적 방식을 지금까지 고수해 왔으며 특별히 올해 더욱 신앙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청소년센터의 올해 사역 기조도 함께 밝히고 있다. 이에 청소년센터의 향후 추가적인 2세 사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아침예배 오전 8: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예배 - 버질중학교 (1가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0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금요전도 오후 1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6:00
수요예배 오후7:00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213) 267-0030 www.churchla.org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 오후 7:30
교회학교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 일 교 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 lasehil2011@gmail.com
(6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EM 오후 12:15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7:30
영유아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티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 교회
주님을 향한,주님의 향기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은혜집회 오후 8:00
유치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박효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순환** 담임목사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정동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신용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장주영**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조준민** 담임목사
수요기도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查经班：周二 晚上 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목** 담임목사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송재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1부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15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9:00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7:30 **방수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Awana 오후 8:00 (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818)363-5887 Tel: (323)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종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F.(818)549-9199 / choonghyun.org

이찬수 목사 "세속적 · 세상적 성도 느는 것 같아 걱정"

'분당우리지'와 인터뷰… "전 교인에 금식 선포 예정"



이찬수 목사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 전체적으로 영적 감각이 무디어지는 것 같다"며 "교인 수는 늘어났는데, 정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성도는 몇 퍼센트나 될지 질문해 본다"고 했다.

이 목사는 교회가 펴내는 '분당우리지(誌)' 1월호에서 "2018년을 돌아보며 교회적으로 감사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달라"는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육적 그리스도인'은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생각과 생활 태도가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또 "새해 목회 계획 및 주요 사역 방향"에 대한 질문에 "경건과 영적 성장"을 꼽으면서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물로 희석되어 가는 느낌이 든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마비된 상태"라며 "그래서 1, 2월에는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주제에 집중해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영적 성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가 금식"이라며 "내년(2019년) 초에는 전 교인을 상대로 금식을 선포할 예정이다. 우선 3월 1~2일 순장들이 먼저 온전한 세끼 금식에 참여하게 된다"고도 밝혔다. 특히 "분당우리교회가 사회복지에는 탁월하지만 선교나 전도에는 소극적이라는 평이 있다"는 물음에 이 목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말씀 전하는 것과 멈춤 없는 복지사역이었다"며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병 고치고,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셨다"고 했다.

이어 "사회복지와 전도는 다양한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피조물을 해방시키려는 주님의 양대사역이었다"며 "현재 우리복지재단 이웃사랑분과를 통해 하는 다양한 섬김이 성남지역에서 교회와 복음에 대한 벽을 허무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한 해 감사한 점에 대해 이 목사는 "교회 공동체가 단기간에 비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큰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 교회에 대한 신뢰가 안정적인 것 같아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를 신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 믿어주는 분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스스로 갖게 되는 부담"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날이 밝지 않을 것 같아도 반드시 오는 하나님의 때"



12시간 연합 기도모임 '원 크라이(One Cry)' 현장

나라와 민족을 위한 12시간 연합 기도모임 '원 크라이(One Cry)'가 18일 6시부터 19일 오전 6시까지 일산광림교회(담임 박동찬 목사)에서 개최됐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월에 열리고 있는 '원 크라이'는 구약 사무엘 시대 '미스바 기도'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온 민족과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 나라를 올려드리는 연합 기도운동이다.

먼저 정예진 찬양 사역자가 원 크라이의 주제곡을 부르며 그 시작을 알렸다. 기도회에 앞서 박태남 목사(정릉 벧엘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며 함께 울고 함께 소리쳐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란다"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기는 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라며 "우리 어떠한 수고나 노력, 계획과 비전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와 다음세대에 임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크라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현장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 유비크워십(Ubique Worship)이 '좋으신 하나님', '기뻐하며 경배하세', '주 임재 이곳에', '위대하신 주' 등의 곡들로 예배를 이끌었다.

첫 메시지는 김한원 목사(서부제일교회)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그래도 그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한원 목사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징계하시는 장면이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만, 동족은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졌다"고 했다. 이어 "제가 예레미야의 입장이 된다면 '이 말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그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난 모르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말했을 거 같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래도'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다. 예레미야가 범죄한 게 아닌데, 그는 마치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께 메달리며 '그래도 그래도' 하면서 기도한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태도를 요구하고 계신다"고 했다.

김신의 기자



칼 렌츠 목사. ⓒ칼 렌츠 목사 인스타그램

“9살 난 아들이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뉴욕힐송교회 칼 렌츠 목사가 교회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아들에게 가르쳐 준 교훈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렌츠 목사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최근 9살 난 아들 로만(Roman)이 ‘아빠, 저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아들의 고민은 진지했고, 어른들이 들어도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에게 ‘감정은 좋은 것이고 매우 중요하단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배적인 요인은 아니야. 우리의 감정이 확신과 맞을 때는 환상적이지. 그러나 예외적이고 항상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단다’라고 말해주었다”고 했다. 렌츠 목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신 것들 중 가장 놀라운 일들은 절대 ‘좋은 느낌’을 수반하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항상 좋은 느낌은 아니다. 희생적인 나눔이 항상 좋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나를 괴롭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옳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는 일이 항상 좋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옳다. 당신이 가진 확신에 반대하는 감정이 느껴질 때가 오면,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다스릴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기억하라. 이것은 언제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렌츠 목사는 아들 로만에게 “주일예배 때 성도들에게 인사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아들은 내키진 않았지만 순종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고. 그는 “아들이 ‘아빠, 인사하고 싶지 않았는데, 인사를 하고나니 사람들을 도왔다는 생각에 기뻤어요’라고 말했다”면서 “항상 나의 확신 가운데 거하길 원하고, 나의 아들도 나와 같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美 교회, 셧다운 이어지자 공무원 교인들 재정 지원


1월 6일 주일 설교를 전하고 있는 도널드 존슨 목사. ⓒ도널드 존슨 목사 페이스북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4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한 교회가 셧다운의 영향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연방 공무원들의 생활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크그로브 미셔너리침례교회의 도널드 존슨(Donald Johnson) 목사는 뉴스채널 3과의 인터뷰에서 “국세청과 같은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교인들이 있다. 셧다운에 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의 자료들을 통해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8명의 교인들을 찾아냈다고 한다. 그리고 헌금과 교회 재정을 통해 약 8천 달러를 모아 주일날 8명에게 각각 1,000달러씩 전달할 수 있었다고.

이 교회 성도로 국세청에서 약 35년 동안 일해 온 제니스 뱅스톤(Janice Bankston)은 폭스13과의 인터뷰에서 “전에도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둔 적이 있었지만, 이번 셧다운은 다르게 느껴졌다. 과거 몇 주 동안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청구서를 어떻게 지불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보호법인 전국노동관계법(LNRA)은 미 노동자에게 파업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 종사자들은 예외다.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당시 연방정부 파업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미국 부통령 부인, 性에 엄격한 기독교 학교 교사 됐다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의 아내 카렌 펜스(Karen Pence) 여사가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직원들에게 결혼과 성에 관한 전통적인 가르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카렌 펜스 여사는 버지니아 스프링필드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시간제 미술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다. 펜스 여사는 수상 경력이 있는 수채화가로, 작년 12월 시간제 교사직을 받아들였고, 오는 5월까지 일주일에 2번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이다. 허핑턴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이 초등학교의 2018년 입사지원서에 따르면, 지원자들은 신앙고백서에 서명을 해야하고, 여기에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평생 서로에게 헌신하는 연합의 관계’라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고용 조항에 따르면, 지원자들은 ‘결혼이라는 용어는 오직 한 가지 뜻을 갖고 있다. 결혼은 싱글인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연합이며,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배타적인 약속이다. 하나님은 결혼한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서만 성적인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고,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어떤 친밀한 성적 행위도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한다”고도 했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O.C,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음날) 7: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C)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명으로 열방을 살리는 예배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거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 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유아,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청년 오후 12:30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이재훈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최성칠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되게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박 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Youth Services: Sung Hong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oseph Su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교 박해 국가 늘고 박해 강도도 갈수록 커져"

오픈도어선교회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발표



파키스탄에서 박해로 죽은 동료의 장례식 모습. ⓒ오픈도어선교회

"전 세계 73개국에서 기독교인 9명 중 1명이 강도 높은 박해를 받고 있다."

기독교 박해가 더 많은 국가에서 가속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최근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매년 1월 국제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하는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World Watch List) 브리핑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2018년에는 심각한 수준의 박해를 받는 국가로 분류된 곳이 58개국이었으나, 올해는 그보다 15개국이 증가했다"며 "2012년부터 박해가 가속화되어 2016년 이후는 더 심화되는 기독교 박해 상황을 해마다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5년 전에는 북한만 WWL의 '극심한 수준'의 박해(100점 만점 중 81점 이상 기록)를 받았으나, 2019년 보고서에는 2018년과 동일하게 11개 국가가 극심한 박해 영역에 포함됐다.

1990년대 WWL을 제안한 위보 니콜라이(Wybo Nicolai)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최고 책임자도 "통계적 증거를 기반으로 기독교인이 경험하는 박해가 질적, 양적 측면에서 박해 강도나 박해 발생 국가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조사 결과에서도 작년에 비해 박해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조사 영역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교회 생활'의 5개 영역과 폭력을 포함한 총 6개 영역이다. 총 조사대상 150개국 중 박해순위 12위에서 40위 사이를 차지하는 29개 국가의 경우 100점 만점 중 박해점수가 61점 이상을 기록하며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가 보고되었다. 41위에서 73위 사이의 33개 국가는 41점을 기록해 '높은 수준'의 박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독교 박해 국가로 상위 50개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23개 국가는 높은 박해 점수를 받아 '박해 관찰 국가'(Persecution Watch Country)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WWL 상위 50개국과 PWC 23개국을 합한 총 73개국에서는 기독교인 9명 중 1명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했다. 이는 전년도의 기독교인 12명 가운데 1명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했다는 결과보다 박해가 더 심해진 것을 보여주었다.

또 UN이 아시아로 정의한 중동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아시아에서는 평균 기독교인 3명 중 1명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했고,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인 6명 중 1명이, 남미에서는 기독교인 21명 중 1명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폭력 항목을 제외하고도, 전반적인 영역에서 박해는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2014년 폭력 항목 외 5개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50개 국가 점수의 중간값은 52.9점이었으나, 2019년에는 61.4점으로 각 영역에서 점수가 약 16%나 상승했다.

이종만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사무총장은 "디지털 혁신에 의한 지구촌 자료 수집이 용이해져 더 구체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해진 것도 부분적 이유"라며 "기술은 각국 정부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폭력 영역에서 뚜렷한 상승이 없는데도 전반적인 박해 수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죽음과 파괴로 치닫는 직접적인 폭력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차별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보다 체계적, 합법적, 사회적 억압 구조가 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희 기자

"미국 낙태 합법화 판결 재검토 원한다" 65%

현지 설문조사 결과… "낙태에 추가적 제한 필요"



ⓒpixabay.com

미국에서 10명 중 6명이 낙태에 추가적인 제한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 이른바 '로 대 웨이드'(Roe vs Wade)가 재해석 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크리스천포스트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마리스트 여론조사기관(Marist Institute for Public Opinion)은 가톨릭 단체인 '나이츠 오브 콜롬버스'(Knights of Columbus)의 의뢰를 받아 18세 이상의 미국 성인 1,066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기관은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판결을 재고하길 원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30%가 낙태에 특별한 제한없이 (1973년의 판결을) 합법적으로 여겨야 한다고 답했으며, 49%는 '특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고, 16%는 '낙태는 전면적으로 불허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이츠 오브 콜롬버스의 앤드류 월더(Andrew Walther)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결과 응답자의 65%가 대법원이 로대웨이드 판결을 재고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원래의 판결을 기능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월더 부회장은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내려지기 전과 비슷한 법적 분위기를 선호했다. 당시에는 주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낙태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낙태에 보다 엄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과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65%나 되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아주 작게 반복하는 지혜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롭게 도전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목표는 우리를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내면의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목표는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정확한 목표는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와줍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적지 없이 표류(漂流)하는 배와 같습니다. 목표는 우리 시각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목표는 우리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산만한 삶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가 좋은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목표를 너무 크게 설정하면 큰 목표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 목표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거대한 목표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큰 목표를 향해 첫걸음도 떼지 못한 채 포기하고 마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목표를 세울 때, 너무 쉽게 이룰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제가 지금의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선한 목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좋은 목표입니다. 사람을 키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키우는 목표는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도록 돕는 목표는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깊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꼭 글로 쓰는 훈련을 하십시오. 목표를 글로 쓸 때 목표는 더욱 구체적이 되고, 더욱 선명해집니다. 또한 기록한 목표를 자주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을 세운 후에는 그 계획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십시오. 가장 좋은 전략은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목표도 처음에 작게 시작하는 힘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 위대한 성취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장 작은 씨 중의 하나인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마 13:31). 저의 삶의 비밀 또한 작은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작은 반복의 힘을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중에 큰 목표를 달성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빕니다.

향기나는 사람들



강 지 윤 박사

오랜 시간 인내를 가지고 치유에 임하다 마침내 심리상담을 종결하게 된 한 내담자가 수줍게 작은 선물상자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그 상자에는 고운 핑크 색상의 립스틱이 들어있었다. 치유된 그녀의 모든 마음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와 함께 내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 립스틱 빛깔보다 더 고운 그 내담자의 마음을 기억하며, 매일 내 창백한 입술에 바르며 반짝 생기를 얻곤 한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마음 통증과의 사투를 끝낸 그들이 끝까지 함께 해준 상담전문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종종 이메일이나 문자로 안부를 전하거나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오거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보여주려고 셀카사진을 보내오거나...

그 모습과 마음을 만나며, 치유된 이후에 그들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서는 진한 향기가 난다.

치유 전에 있었던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등에 따라 붙어 있었던 어둡고 퀴퀴하던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로 바뀌었다. 치유된 사람의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주위를 밝히며 퍼져 나간다. 치유 전에 그토록 증오하고 분노하던 마음이 사랑과 용서로 바뀌는가 하면, 병적인 고독으로 자살충동이 불일듯 일어나던 마음에서 살아갈 용기와 인내가 생기기도 한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각양 각색의 아픈 증상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었다. 그들이 앉았던 테이블 건너편 의자 위에는 자욱한 향기가 남았다. 그 향기는 지친 내 마음을 어루만졌고 새로운 아픔을 어루만지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다.

지난해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이루고 떠나갔다. 십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생의 모습으로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에 치어 겨우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이 상담자의 도움을 받고 온 힘을 다해 치유를 이루어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 한 사람이 떠나간다는 것,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놀랍고 오묘한 경험을 매번 하면서, 내 몸은 쇠약해졌다가 다시 회복다가를 반복했다.

좀더 젊고 힘이 있었던 시절에는 단 한 사람도 치유를 포기하지 않으려 애쓰며 열정적인 안내자가 되어주었다. 너무 오래 그들의 힘든 인생을, 그 지난한 고통들을, 토하듯 들려주는 그 진한 통증을 오롯이 받아내야 해서일까. 어느 날부터 나는 점점 상담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소수의 사람만 도와줄 수 있게 되었고, 어쩌면 완전히 내려놓아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동안 내 몸은 쇠약해져갔고 회복되는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프고 슬픈 스토리는 내 인생에 스며들어 내 것이 되어야 했다. 내 것이 되어야 그들을 깊이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치유를 이루고 떠나가면서 남기는 향기를 맡으며 다시 새힘을 얻고 회복되었다.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종종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또다시 한 사람을 떠나보내며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치유의 진한 향기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감정은 습관이다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람은 기쁨, 슬픔, 노여움, 두려움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화가 날 일이 있으면, 노여움을 느끼고, 무서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저와 아내는 침대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호텔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두 아이 모두,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유리컵으로 물을 퍼 담는 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떨어트려 컵이 깨진 것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혼이 날까봐, 두 아이가 직접 깨진 유리를 수습하려다 손이 베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얘들아 괜찮아? 무섭고 아팠지? 어디보자. 피가 나는구나. 아빠가 약 발라 줄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먼저 이야기 해줘야 해. 왜냐하면, 너네들이 만지면, 위험하거든. 봐, 이렇게 손이 베였잖아. 그리고 이런 일로 아빠 엄마 혼내지 않아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야. 아빠가 다 치울 테니까 걱정 마" 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상처를 본 순간 제 마음에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왜 아빠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 왜 유리컵을 갖고 놀았어?" 야단을 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손에 약을 발라 주고 난 뒤, 아내가 조용히 "여보, 왜 아이들에게 화를 내?" 물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너무 걱정돼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왜 내가 화를 냈을까? 화를 낼 상황이 전혀 아닌데"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형과 제게 어떤 문제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안절부절못하며, 노여움이라는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이 무의식중에 제게 학습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부터, 제 안에 학습되어 있는 잘못된 감정의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박용철 원장님이 쓴,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의 뇌는 잘못된 감정이라도 오랫동안 습관화와 학습화 되어온 감정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한 감정을 소유해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왜곡된 감정의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곤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감정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공감하여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Youth Minister
Beautiful Church

- Categories : Youth Pastor
- Denominations : Baptist-SBC
- Job Type : Full-Time

Job Description

The Youth Pastor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leadership, oversight and implementation of the youth ministry at Beautiful Church, which includes teens from thirteen years old to the age of eighteen. The Youth Pastor will work with the Director of Education Ministries m (DEM) for the goal of overseeing all ministries and events designed with the purpose of reaching and discipling teenagers in Christ.

Application Procedures

Interested and qualified individuals should send a cover letter, resume, sample message (MP3 or MP4), Personal Testimony, Calling to Ministry, 2 References Letter (One from Former Ministry) along with salary expectations electronically to beautifulchurch@hotmail.com. Candidates who appear to be a good match for both Beautiful Church and this position from a preliminary review of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will be contacted for interviews and further candidating steps.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기독일보 목회자 청빙 참고
www.kr.christianitydaily.com

Beautiful Church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 626-810-345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323)732-4669
VALERO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프로지 PRO-Z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하지절단) 37%(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전화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주님미디어 새해맞이 이벤트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거치대포함
*사이트에서 샘플선택
인기상품 A형 스탠드배너 $160 (디자인 포함)

주님미디어 NEW YEAR EVENT
말씀 액자
$35 16x16inch 기준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손글씨로 제작된 말씀액자입니다.
주님미디어에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물티슈
주보제작
교회로고
머그컵&텀블러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존 로스의 '만주 선교 방법론'

복음 전도를 제국주의 선교라 낙인찍는 중국 정부에 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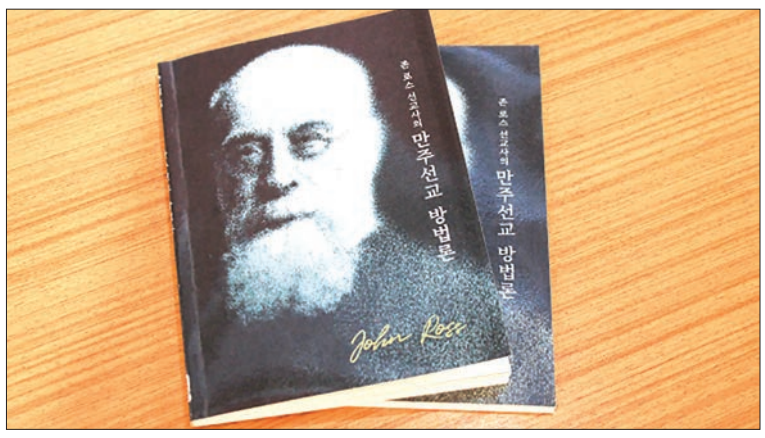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중국 및 조선 선교사 존 로스의 '선교 방법론'을 출간했다.

이에 동 단체는 17일 오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순교자의 소리 CEO 에릭 폴리 목사는 "존 로스 선교사는 무엇보다 조선과 중국을 사랑한 선교사"라며 "그는 아주 평범한 조선 사람들을 향해 선교했고, 평범한 민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조선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는 "존 로스 선교사는 항상 선교를 '똑똑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나온 지 110년 만에 한국에서 순교자의 소리가 이 책을 처음 번역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이 이제야 정식 출간한 이유로, 에릭 폴리 목사 "중국이 2018년 2월 종교사무조례를 통과시키며, 기독교 박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존 로스의 '선교 방법론' 출간은 시의적절하다 생각"했다며 출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에릭 폴리 목사는 현재 중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3자 교회를 앞세워 기독교의 중국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며 "종교 사무 조례를 통해 등록제를 의무 시행함으로 외국 기독교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중국의 가정교회들은 3자교회로 등록할 것을 종용받고 있다"며 "2018년 겨울, 중국의 3대 가정교회인 베이징 시온 교회, 광저우 용길 교회, 청두 언약 교회들은 폐쇄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존 로스가 확립한 본래 중국화 개념을 되짚으며, 순수 복음 전도를 서양 제국주의 선교라 비난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 반박하고, 나아가 중국뿐만 아니라 선교지 고유문화를 존중하는 선교 실천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이 책의 출간은 의미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만주 선교 방법론' 한국어 번역본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기독교의 중국화'

중국 당국이 기치로 내건 '기독교의 중국화'는 무얼까? 그는 "중국 정부 및 3자 교회 관점은 '현재 중국 내 기독교는 중국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 곧 서양화를 위해 침투해왔다'는 것"이라 밝혔다. 하여, 그는 "중국 정부는 가정교회가 제 3자 교회에 등록함으로서, 서양적 기독교를 탈색하고 중국화 된 기독교에 협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중국 정부 및 제 3자 교회는 선교사들이 중국의 가치와 문화를 무시하고, 서양적 기독교를 일방적으로 침투시켰다"는 그들의 주장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존 로스 선교사의 '만주선교 방법론'은 이미 기독교의 중국화를 말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시 말해, 그는 "중국 문화 및 삶을 존중하고, 그에 맞춰 중국 고유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존 로스의 선교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존 로스가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 중국화란 중국 현지 문화를 깊이 체현해, 중국 사람들을 더 많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 책은 중국 정부의 목표를 촉진하거나, 늦추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그는 "중국 당국이 말하는 기독교의 중국화는 어쩌면 중국 공산당 입맛에 맞는 기독교를 길들이는 데 있다"며 "중국 정부 관료들은 이 책을 통해 기독교의 중국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정부는 기독교의 중국화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3자 교회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을 전하며, "110년 전 씌여진 존 로스 선교사님의 책은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기독교이 중국화가 바로 가짜라는 걸 알려 준다"고 했다나아가 그는 "중국 당국은 중국을 진정으로 존중하며,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던 존 로스 선교사 같은 사람들을 페인트로 지우고 있다"며 "도리어 중국문화에 맞는 기독교를 세우려는 선교사들의 주장을 '제국주의'라며 묵살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존 로스, 자유의 복음 전해

에릭 폴리 선교사는 존 로스가 말하는 선교 방식이 제국주의가 아닌 중국 사람들을 존중한 자유의 복음을 전했다는 걸 재차 강조했다.

"중국인의 양심이 우리의 본보기를 따르도록 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들을 얽매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도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규칙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따를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규칙을 강요할 때, 우리를 속이라고 그들에게 빌미를 주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은 매우 실용적입니다...(중략)... 외국 선교사의 뜻이니까 무턱대고 그 방식을 따르라고 강요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강요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진심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야 참 신앙입니다. 이에 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종교를 속박과 짐으로 만듭니다....(중략)... 믿음은 오직 당사자 자신이 '마음으로 확신할 때만' 믿음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는 "존 로스 선교사의 글에서 어떤 제국주의적 냄새는 나지 않는다"라며 "그래서 이 책을 출간한 이유는 존 로스 책을 읽고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말하고, 기독교의 중국화에 정면 반박하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존 로스 선교사의 만주 선교 방법론을 중국 정부, 3자 교회, 학자, 특히 가정교회에 배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존 로스의 글을 통해 중국 초기 서양 선교사들이 추구했던 참된 의미의 기독교의 중국화를 알게 될 것"이라 전했다.

지난 3년 간 한국 선교사 수천명 추방당해

끝으로 그는 "지난 3년 동안 중국에서 수천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추방당했다"며 "이유인 즉슨,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교회에 반하는 기독교를 퍼뜨린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그는 "위험을 감수하서라도 한국 선교사들은 적극 중국에 가서 선교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한국 선교사들은 사역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2018년 12월 중국 가정 교회인 '언약 교회' 왕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며 "그들은 존 로스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우리 한국 교회는 중국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가정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기도, 후원뿐만 아니라 선교 활동으로 계속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그는 "존 로스 선교사의 '만주선교 방법론'은 중국 및 한국 그리스도 형제자매들에게 중국 선교에 있어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상황에 맞춰 선교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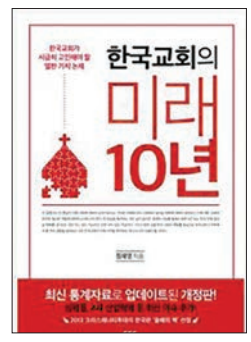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한 교계 신문사 기자는 "현지에 맞춘 선교 방법론이 한국 교회 및 선교단체에서 충분히 연구된 상황"이라며 "이미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선교하고 있는데, 굳이 존 로스 책을 설명하면서 현지화 선교 방법론을 들고 나온 이유"를 질문했다.

이에 에릭 폴리 목사는 "외국에 가면 현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한국 선교사들에 대해 똑같은 공통점을 이야기 한다"며 "한국 선교사들이 기도 말씀에 헌신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식 설교, 한국식 교회, 한국식 건물, 한국식 목사, 한국식 교육훈련'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서 "우리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과 얘기 나누며 느낀 점은, 한국 선교사들이 기독교의 상황화 선교에 적응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그는 "존 로스 선교사가 어떻게 현지 상황에 맞춘 복음 선교를 해야 할지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부자"라며 "그래서 그런지 그 나라에 가서 선교 때,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헌금을 모아,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교회를 세우도록 돕는 걸 망각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자립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가르치는 걸 잊어버렸다"며 "현지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 방식의 교회처럼 보이면 안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가 시급히 고민해야 할 11가지 논제

정재영 교수, 「한국교회의 미래 10년」



한국교회의 미래 10년
정재영 | SFC출판부 |
296쪽| 15,000원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가 '한국교회가 시급히 고민해야 할 11가지 논제'라는 부제를 단 「한국교회의 미래 10년」(SFC)을 최근 펴냈다. 정 교수가 6년 전 출간한 「한국교회 10년의 미래」의 개정증보판이다.

이 책은 구체적인 통계와 다양한 학술 자료 및 실제 사례들을 근거로, 한국교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 교회가 생존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지난 2012년 처음 나왔지만, 통계 자료를 최신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고령화·저출산, 가족의 해체, 다문화 사회, 경제 상황, 정보화 사회, 탈현대, 선교, 통일, 세계교회, 대안 교회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은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 책이 아니다. 최근의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먼 미래는 아니라도 최소한 10년 후를 내다보고 대비하자는 취지로 쓴 책"이라며 "이 책이 한국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순교자의 소리 건물에 붙어 있는 존 로스 사진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겨울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겨울학기일정

2018년 12월 15일 (토) - 2019년 2월 23일 (토)
(매주 토요일 4과목 12학점이 개설됩니다)

1교시 | 오전 9시 - 오전 11시
2교시 | 오전 11시 10분 - 오후 1시 10분
점심식사 | 오후 1시 10분 - 오후 2시 10분
채플 | 오후 2시 10분 - 오후 2시 40분
3교시 | 오후 2시 40분 - 오후 4시 40분
4교시 | 오후 4시 50분 - 오후 6시 50분

모집과정

학사
BACHELOR OF THEOLOGY 신학사
BACHELOR OF MISSIONARY 선교학사
BACHELOR OF CHRISTIAN COUNSELING 기독상담학사
BACHELOR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육학사

석사
MASTER OF DIVINITY 교역학석사
MASTER OF THEOLOGY 신학석사
MASTER OF MISSIONARY 선교학사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기독상담학사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육학사

박사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DOCTOR OF THEOLOGY 신학박사
DOCTOR OF MISSIONARY 선교학박사
PH.D. CHRISTIAN COUNSELING 기독상담학철학박사
PH.D.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육철학박사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돈키호테는 왜 기독교 소설인가

[기독교 문학을 만나다]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

책 곳곳에 기독교의 향기 담겨 있어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사느냐' 가 우리 삶을 결정



귀스타프 도레의 〈돈키호테〉 삽화.

저는 영화 〈트랜스포머 1〉을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전날 1박 2일간 수련회를 다녀왔던지라 몸이 아주 피곤하여 바로 집에 가서 자려고 했지만, 같이 보자고 한 후배가 꼭 이날 보자고 하여 봤습니다.

상영시간은 135분. 2시간이 넘었지만,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기했고 놀라웠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한 달 동안은 보이는 자동차와 자판기, 핸드폰과 오디오 세트 등 각종 기기들이 변신해서 로봇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각이 드는 스페인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는 여러 출판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간됐습니다. 제가 읽은 건 2004년 시공사에서 나온 732쪽에 달하는 '400주년 기념판'입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라만차 지방 어느 마을에 사는 시골 귀족 돈키호테는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자신이 세운 규율을 지키려 하는 편벽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부터 기사(騎士)소설에 심취하더니 권력이 없는 기사라는 뜻의 편력기사가 되어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금까지 읽었던 소설 속 편력기사의 모험들을 직접 실천에 옮겨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길이 남기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고는, 산초 판사와 피골이 상접한 마른 말 로시난테를 이끌고 정의를 구현하러 방랑의 길에 들어섭니다.

〈돈키호테〉는 너무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붙은 문구만 보면 성경 다음으로 이 이상의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전 중의 고전', '19세기 세계적 대문호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준 책',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선정 대학교 신입생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이 책에 대한 상찬은 너무 많습니다.

우선 '왜 이 책이 기독교 소설이냐' 하는 의문에 답을 내리겠습니다. 혹자는 '그냥 일반 분야의 고전이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의 유럽은 기독교의 정신, 성경의 구절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책을 기독교 소설로 읽은 게 아니라, 고전으로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 기독교 소설로 분류해도 무방할 정도로 책 곳곳에 기독교의 향기가 가득했고, 생각해 보건대 이 시대의 모든 책들이 기독교 도서라 해도 무방하겠다 싶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려 하면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돈키호테〉를 읽을 것인가?'입니다. 현재 '완역판'이라 하여 판매되고 있는 책은 열린책들 출판사의 〈돈키호테 1, 2〉권과 시공사에서 나온 〈돈키호테 1, 2〉권입니다.

먼저 나온 책은 이번에 소개한 책입니다. 〈돈키호테〉는 원래 1, 2권으로 나뉘어 출간되었습니다. 1권은 1605년, 2권은 1615년에 나왔습니다. 시공사에서 처음에 출간 400주년이 되는 2005년 전, 2004년 말에 1권을 출간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하는 책이 1, 2권으로 구성된 〈돈키호테〉가 아닌, 그것도 현재는 절판되어 중고책방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완역판 초기작인 2004년에 나온 시공사 〈돈키호테〉인 것은, 다 읽고 나서 '굳이' 2권까지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기로는 전문가나 출판사에서 소개한 것처럼 대단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돈키호테〉에 대한 많은 상찬들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편력 기사가 되어 정의를 구현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처음엔 우스꽝스럽고 안쓰러워 몰입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732쪽 초지일관입니다. 1, 2권까지 되어 있는 책을 읽는다면 2,000쪽에 육박하는 내내 돈키호테의 황당무계(荒唐無稽)한 행동들을 읽는다는 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렇게 의미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읽고 이렇게 감상평을 쓰면서, 그건 저의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다양한 해석과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마치 〈레 미제라블〉과 같을 겁니다. 영화 〈레 미제라블〉이 나왔을 때, 문학계에서는 〈레 미제라블〉의 완역판 도서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대부분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레 미제라블〉은 주인공 장 발장이 빵을 훔친 죄로 억울하게 오래 옥살이를 하다 회심하여 성인이 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길 줄은 몰랐던 겁니다. 〈레 미제라블〉은 단순히 장 발장의 일대기를 그린 게 아니라, 장 발장을 주인공으로 19세기의 격변과 혁명을 다룬 대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때문에 〈레 미제라블〉을 사는 사람은 많았어도, 막상 다 읽은 사람은 드물 겁니다.

〈돈키호테〉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망상에 사로잡힌 돈키호테의 이야기로 치부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시 시대와 문화상을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이란 그런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단순히 '이 시대에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며 이렇게 살았다'라고 설명하면 지루한데 이야기에 녹여내 설명하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소설 쓰기가 어려운 점은 쓰는 시대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소설 읽기가 좋은 점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당시의 시대상도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돈키호테〉를 읽으면서 가장 깊이 차지하고 있는 깨달음은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기사 소설에 심취한 돈키호테는 시골 귀족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전 재산과 전 생애를 바쳐 편력기사가 되어 정의를 구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릴 때 어떤 잔학무도한 젊은 살인자의 이야기를 기사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도위원이 '왜 그랬냐?'고 묻자,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개 잡는 걸 자신에게 시켰다는 겁니다. 자신은 정말 하기 싫었지만 자주 하다 보니 생명체를 죽이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도 거부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음란물에 심취하면 성범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란 남자아이는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 때릴 확률이 높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정글 속에 두면 정글의 사람이 되어 다시 도시로 데려와도 정글의 습성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사느냐가 자신의 삶을 정해지는 겁니다. 왜 맹자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했겠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좋은 걸 보고, 좋은 글을 읽고, 좋은 향기를 맡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한쪽에선 욕을 먹으면서도 존재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시로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에 있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독 도서를 읽기를 권장하는데 있습니다.

전에 명절 때 친척분들과 대화하다 어느 믿지 않는 분이 "나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왜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해? 절은 일년에 한 번 정도 가도 뭐라 하지 않잖아!" 하였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르쳐 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교인들의 뼈와 핏속에 스며들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돈키호테처럼 하나의 가치를 위해 주위의 비난과 조롱, 가난과 매맞는 것을 견디며 지켜낼 수 있는가?'

세상과 사람의 상식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행하는 모습이 '정신나갔다', '이상주의자'라 할 수 있지만, 그의 초지일관된 모습은 저를 반성하게 하고, 믿는 자에게 질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너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 하고, 신학책과 경건도서를 많이 읽으며, 기도를 많이 했다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목숨 걸며 살고 있느냐?

교회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네가 읽고 들은 진리를 전하고 있느냐? 오히려, 노방전도를 하는 그들을 멸시하며 '기독교의 수치'라고 비난하고는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읽고 들은 성경과 신학도서와 경건도서는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과 글보다 가장 우위에 있다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제대로 적용하며 살고 있는지요.

돈키호테의 광기 어린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광기 어린 자세로 복음을 입술과 행동으로 전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 믿는 사람에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돈키호테의 광기를 우습게 봐선 안 되고, 〈돈키호테〉를 가볍게 읽어선 안될 겁니다.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고 주위의 모든 기기들이 변신할 것 같은 착각이 든 것처럼, 돈키호테는 기사 소설을 읽고 주위의 모든 세상이 기사의 제국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늘 도서와 설교를 읽고 들으며, 주위의 모든 세상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지로 여기며,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일로 매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재미 면에서 분명한 단점이 있지만 〈돈키호테〉는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과 날카로운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이성구(서평가)

2019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2002~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1위 국가 "북한"

한국오픈도어, 사랑의교회에서 세계기독교박해 지수 보고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를 16일 오전 11시부터 사랑의 교회 국제회의실에서 발제했다. 발제자로 오픈도어 사무총장 이종만 목사가 나섰다. 그는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경향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었다. 첫째 국가 권위주의의 확산, 둘 째 초강력 민족주의에 기초한 정부의 기독교 배척, 셋 째 중동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과격 이슬람 세력의 확산이다.

그는 국가 권위주의 확산을 설명하며, 북한, 중국, 베트남 등 공산주의국가를 예로 들었다. 그는 "북한은 18년 연속으로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 부동의 1위'이며, 최고 영도자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다른 신념과 종교를 정치적 범죄로 분류 한다"고 전했다. 추가로 북한 발제를 맡은 이다니엘 오픈도어 간사는 "북한은 2002년부터 2019년 까지 기독교 박해 부동의 1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중 접경 지역에 활동하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은 붙잡혀 종신형에 가까운 형을 언도받았다"며 "남한 미디어 유포자 또한 종신형에 가까운 형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한반도 평화 무드와 무관하게,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여전하다"며 "북한 선교는 보통 중국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시진핑 정부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면서 선교 환경은 더욱 어려워 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이 전반적인 감시와 통제를 기독교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벌이고 있음"을 밝히며, 그는 "성경 같은 기독교 물품 통제는 더욱 극심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추산으로, 그는 "북한 내 지하교인들을 포함해 20-4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5-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 탄광, 오지에 끌려가 핍박당하고 있음"을 전했다.

중국, 기독교 박해 본격화

다시, 이종만 사무총장은 "중국(27위)도 2018년 2월 1일부터 종교 사무조례를 시행시키며, 청소년의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고 나아가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회 출입을 금지 서약에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2018년 3월부터 무제한적 권력 승인 받은 시진핑은 향후 5년간(2018-2022) 중국 기독교의 활동에 대한 원칙을 발표하며, 기독교 박해를 본격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국 정부는 가정교회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해 박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지난 9월 1,500명이 모인 베이징 최대 가정교회인 시온교회가 카메라 설치에 반대함으로, 폐쇄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재교육 캠프를 설치시킴으로,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이 캠프에 끌려갔고 이후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베트남, 기독교 통제 및 감시 및 미얀마의 민족주의

아울러 그는 국가 권위주의 국가로 베트남(20위)을 설명했다. 그는 "1975년 공산화 정권이 들어선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에 관한 최초 법률을 통해 '종교사무위원회'라는 기관 설치를 본격화했다"며 "기독교 통제 및 감시를 증강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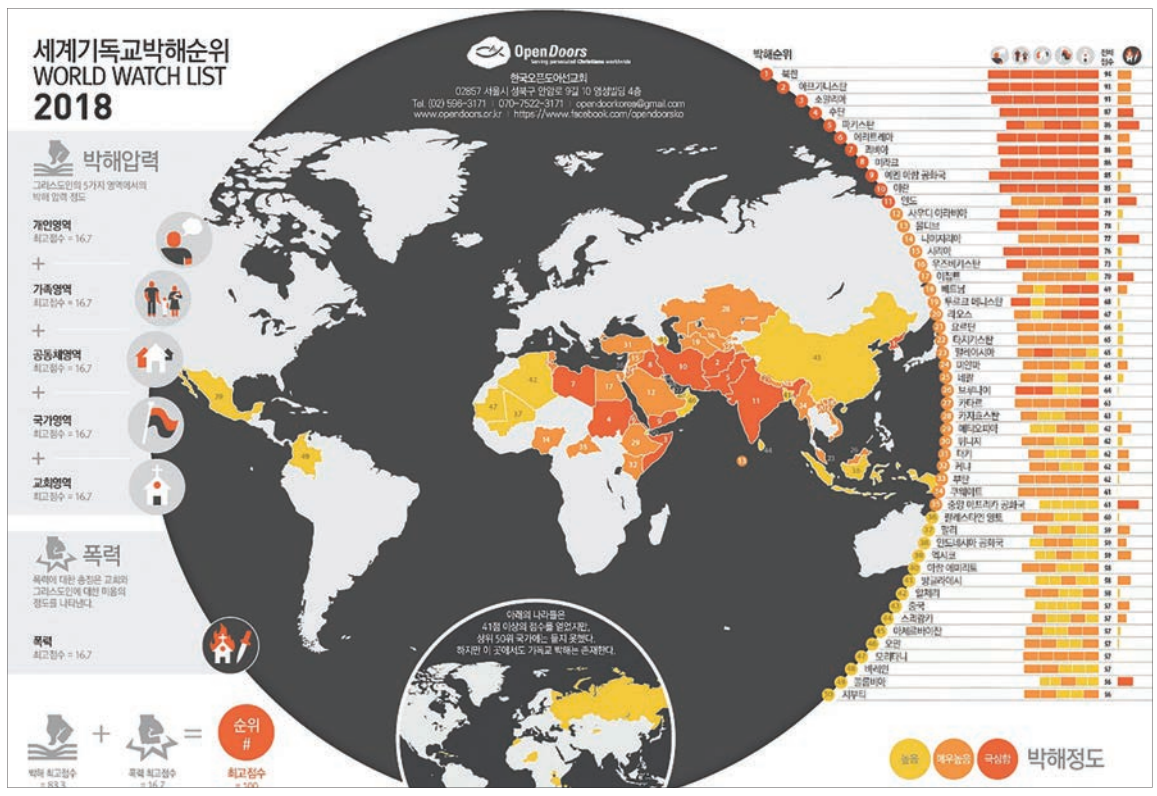
덧붙여 그는 미얀마(18위)도 소개했다. 그는 "미얀마의 기독교 박해는 민족주의와 결합하는 추세"라며 "미얀마에 주둔한 군대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됐으며, 수천 명이 피살됐고 최소 12만 명은 기독교인이 밀집한 카친(Kachin)주로 피신했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미얀마 최대 군사 집단인 '와연합군대(Unitede Wa State Army)'는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모든 교회와 선교사를 조사하고 외국인 사역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인도, 힌두교와 국수주의의 결합

두 번째 경향으로, 초강력 민족주의에 기초한 정부의 기독교 배척이다. 그는 "인도(10위)는 최근 힌두교와 국수주의가 결합한 '인도인민당'이 집권한 후, 기독교 박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29개 중 8개 주는 반개종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힌두 과격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폭행하고 마을에서 쫓아내려 한다"며 "기독교가 세운 학교, 병원, 고아원, 자선기관 그리고 교회 등을 폭도들이 공격해도, 새로 개정된 법안에서 무혐의로 다룬다"고 현 상황을 밝혔다. 현재, 그는 "12,500명의 기독교인과 100여 개의 교회가 공격을 당했다"며 "적어도 200명이 신앙의 이유만으로 체포됐고,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심지어, 그는 "비공식적 통계를 합하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비동방정교회 감시 · 통제

또 그는 종전 박해지수 54위에서 2019년 41위로 상승한 러시아도 예를 들었다. 그는 "러시아는 전통적 기독교(동방정교회)를 고수하며, 약 2%에 해당하는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를 러시아는 서구 스파이로 간주한다"며 "해당 기독교 공동체들의 활동은 국가 정보기관 또는 경찰의 감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2월 다게스탄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발생한 공격으로, 성도 5명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다"며 "또 5월에는 체첸 공화국에서 1명이 사망했으며, 교회건물이 파괴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핍박의 방법으로, 그는 "러시아는 종교 기관 의무 등록제를 시행함으로, 비-동방정교회 교회를 감시·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도어제공

중동, 과격 이슬람 세력의 확장

세 번째 경향으로 중동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과격 이슬람 세력(IS)의 확산을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그는 "이슬람 무장세력(IS)가 퇴패하면서 근거지를 중동에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퍼져가고 있다"며 "IS의 과격한 이념이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에서 다양한 서아프리카 IS 분파그룹들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은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을 전략적 요소로 이용해 노예화 하고 있다"며 "2017년 이후,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이집트,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병사들을 모집함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집트(16위)에서 IS는 의사, 수의사 같은 지도자들을 살해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도로에서 버스에 탄 순례객들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하는 등, 콥틱교회를 향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소말리아(3위)에서 IS는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 도망쳐온 테러리스트들을 규합해, 소말리아 알 샤밥(Al-Shabaab) 전투 요원들을 모집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소말리아는 통제 불가 지역이고, IS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며 "1,5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은 수백 명에 불과하고,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면 무슬림 지역사회에 알려져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근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연관된, 예멘(8위)은 현재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란군과 사우디 아라비아와 연합한 정부 간 내전 중이다. 그는 "예멘은 2,900만명이 사는 가장 빈곤한 국가"라며 "이슬람 법인 '샤리아'법이 지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현재의 내전은 IS와 알-카에다 무장 세력 간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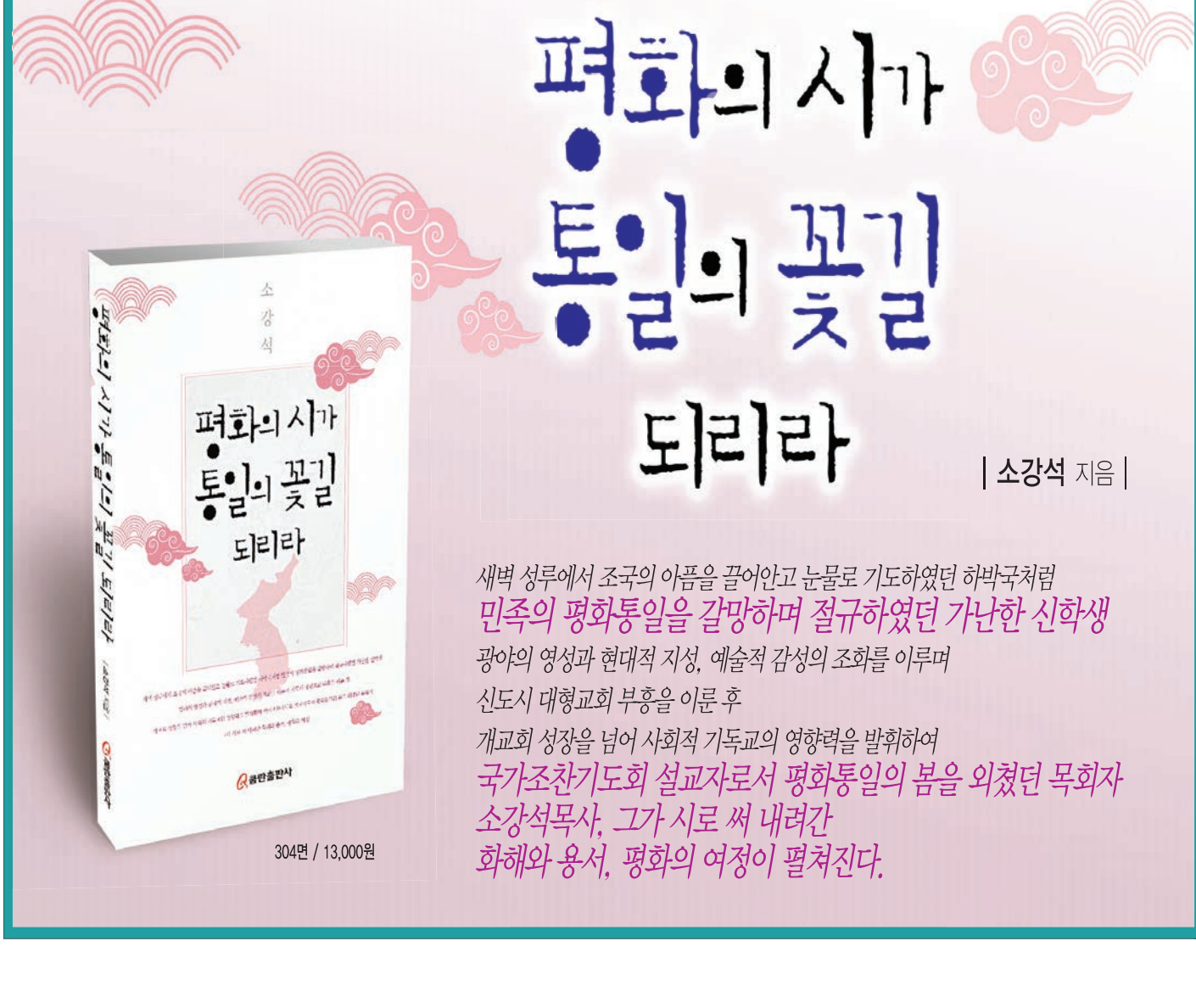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그는 리비아(4위)도 설명했다. 그는 "리비아 정부의 몰락은 불법 무기가 대량 유통되는 상황을 연출했다"면서 "범죄 조직들은 리비아 내 대다수 기독교인들을 노예무역 대상으로 납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로, 그는 "최소 10여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됐으나, 어떤 언론 기관도 관심을 두고 보도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그는 "약 30여개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일부 무장 단체들은 기독교 구호단체 직원들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나이지리아(12위)에서 무슬림과 기독교인으로 나누는 '미들 벨트'에서 무슬림 유목민 폴라니 족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있다"며 "미들벨트 지역에서 갈등 상황이 매우 악화됨으로, 2019년 3,731명의 기독교인들이 희생당했다"고 전했다. 이는 2018년 2,000명에서 1,731명 늘어난 수치다.

이를 놓고, 그는 "AK 소총으로 무장한 이슬람 과격단체들은 많은 기독교인들로 인종과 종교청소를 목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못 한다"며 "작년 6월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230명이 희생됐고, 10월 조스(Jos) 외각 지역에서는 일가족 몰살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향후 오픈도어 선교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오픈도어는 선교사를 파견하는 단체라기 보다, 기독교 박해 국가에 선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이라크 니네베(Nineveh)는 10-15만명의 기독교인들이 머물고 있지만, IS의 공격으로 주택, 상수도, 기업, 학교 등이 파괴됐다"며 "앞으로 오픈도어는 공공시설 재건을 위한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유로, 그는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공동체의 필수 불가결 조건은 바로 주택·경제 인프라"라며 "중동 기독교인들에게 '안전'의 개념이란, 곧 기독교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노형구 기자



100년전 삼일독립을 2019년 복음통일로

미주디아스포라 대결집

복음통일전문세미나/연합기도회

"북한 복음화의 꿈을 꾸자!"

고국의 복음통일을 위하여 선교역사, 정치, 경제, 교육, 문화와 영화, 동족선교 사역 등의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이 주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미주 디아스포라들의 연합기도로 함께 합니다.

- **대상** : 미주 각지역의 성도 및 통일을 기도하는 단체와 기도자들
- **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후 2시 ~ 15일(금)
- **장소** :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 **문의** : T.(425)775-7477, 기독일보 T.(213)739-0403, 사랑의빛선교교회 T.(626)744-9191

공동대표


정성진 목사


고명진 목사


신창민 박사

저녁집회 메시지


임현수 목사


이정훈 교수


이승종 목사

영역별 강의 | **주관교회** | **총무간사**


이학준 교수 플러신학교


이상명 교수 미주장신총장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대표


윤학렬 영화감독 '철가방 우수씨'외 다수


강석진 선교사 극동방송대북설교


윤대혁 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

■ 영역별 주제와 강사들 2월 12일(화) : 오후 2시~5시, 13일(수)~15일(금):오전 9:30~11:30 / 오후 1:30~4:30

역사 – "하나님의 선교, 복음, 한국통일"
이학준 교수(플러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Ph.D)

현재 이슈와 국제 정치법 – "기독교와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근대화"
이정훈 교수(울산대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경제 – "통일경제방안, 실사구시의 길이 있다"
신창민 교수(서울대 법과대학, 클레아몬트 경제학박사)

세계선교 – "남북통일이 세계선교에 미치는 영향"
송 원 선교사 (Cross선교회 상임연구원)

문화와 영상 – "영상의 영적분별력과 영상문화의 영향력", "통일영화제작이 필요합니다"
윤학렬 영화감독 (서울예대, 삼일독립100주년 남북공동시사 '1919 유관순과 그녀들의 조국 제작중, LA 아리랑/오박사네 사람들, 철가방우수씨, 지렁이 등)

통일신학교육 – "디아스포라 한인 크리스천들의 북한 복음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
이상명 교수 (미주장신대 총장)

탈북사역 – "동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유와 복음이었습니다"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대표)

북한지하교회 – "북한지하교회의 실체와 성도의 신앙"
강석진 선교사 (극동방송 대북설교방송요원)

디아스포라 – "차세대 양육과 통일선교"
이승종 목사 (한인세계 선교협의회 사무총장)

통일의 전략 – "서울과 한국과 평양과 땅 끝까지"
김요한 목사 (GMS 총회세계선교회 파송선교사, 통일선교전략협의회 대표)

■ 저녁집회 메시지와 강사들 2월 12일 화요일 저녁부터 매일 오후 7시~9시

첫째날(12일)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임현수 목사
둘째날(13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자"	임현수 목사
셋째날(14일)	"청교도윤리로 세운 위대한 미국"	이정훈 교수
넷째날(15일)	"복음적 통일, 제단불 회복"	이승종 목사

주최 : 국제통일전문가네트워크(Global Expert Network for Reunification Korea)
주관 : 사랑의 빛 선교교회 협찬 : T.M.T.C, (사)합류통일동포연합, 기독일보, 기드온동족선교